

# 진안고원몰 '불금엔 쇼핑' 이벤트 마을로 가는 축제 대상마을 모집

### 15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전 품목 20% 할인·라이브커머스 진행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15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전 품목 20%를 할인하는 '불금엔 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

봄맞이 할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불금엔 쇼핑 1회 차 이벤트는 15일 라이브커머스와 동시에 열린다. 2회 차 이벤트는 오는 22일, 3회 차는 오는 29일 열린다.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15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전 품목 20%를 할인하는 '불금엔 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안고원몰은 딸기, 두릅, 열매마, 사과, 토마토, 약도라지, 작두콩, 목이버섯, 잡곡, 쌀 등 농산물은 물론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 사과즙, 도라지배즙, 생강청, 오미자청 등 액기스류, 누룽지, 들기름, 참기름, 감자류,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진안군수 품질인증 받은 홍삼제품류와 꾸지뽕, 새싹보리, 엄강귀 등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등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봄철을 맞아 최근에는 다양한 종의 꽃잔디 포트와 신약초를 뒤어 만든 차류의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불금엔 쇼핑 이벤트 첫날인 15일 열리는 라이브커머스는 오전 11시와 오

후 1시 2회에 걸쳐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선보이며, 사과주스·ABC주스(마이산약초협동조합) 및 생강청(한시골유기농벨리 협동조합)을 30% 할인가로 판매한다. 방송 중 구매자에게는 토마토즙과 생강청스틱을 구매인 증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쇼호스트 없이 진안고원몰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진안군청 직원과 각 업체 대표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도전 라이브

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진안고원몰 관계자는 "농가나 업체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다"며 "해당 상품의 특징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알차게 꾸며 판매증가와 더불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강화

### 장수군, 산불 예방 활동도 실시

장수군은 산나물, 산약초 등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활동이 급증할 것을 예방하고자 오는 5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임도 등 산림 내 출입 길목에 산림보호팀 지원 10여 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등을 배치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단속 중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

취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활동도 함께 펼친다.

봄철 산림을 찾는 임산객들의 증가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수돗물 수질검사 '합격'

진안군은 14일 오후 1분기 및 3월 수돗물 법정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정 기준인 진안지역 정수장,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간, 월간, 분기별 실시하고, 국가상수도정비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또 수돗물 사용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월운을 비롯한 4개 정수장의 59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과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불소, 브롬산염 등 유해영양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인 벤젠, 페놀,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과 과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인체에 필수 영양물질인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운, 성수 지역 등이 포함된 급수과정 총 15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탁도 및 잔류염소 등은 기준치 이하로 분석되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은 앞으로 59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확대해 급수과정에서 인체의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도농교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위해 추진

무주군이 '2022 마을로 가는 축제' 사업에 참여할 대상마을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무주군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대상은 꽃을 활용한 산책로 트래킹 등 꽃내음 가득한 계절별 농촌마을 여행을 주제로 갖춰 추진할 수 있는 마을로 주요 내용은 ▲봄꽃, 여름꽃을 주제로 마을별 특색있는 축제 프로그램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상품으로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의 소득창출, 공동체 회복과 마을경쟁력을 키우는 자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중명 농촌관광팀장은 "이번 마을로 가는 축제에 참여할 마을 모집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시골의 맛까지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마을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지쳐있는 도시민들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각 마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마을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그동안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 운영, ▲마을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마을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이달 20일 까지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최종 8개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이번 마을로 가는 축제의 취지 및 사업내용 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

## 진안군,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본격화

진안군은 14일 진안읍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 됐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체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월랑체육공원에 산책로와 습터를 조성하고 우화정 주변을 정비하는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연말 마무리된다.

진안군은 지난 1991년 월랑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 문예체육회관을 지었다.

이어 2010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국민체육센터,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골프연습장, 역도훈련장, 국공장 등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왔다.

이에 따라 국비 5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습터를 조성하고 우화정 주변정비와 진안반도체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특히 우화산 부지정비로 나오는 3만㎡의 토사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객토, 산림과 및 관광과 사업예정 부지의 성토, 환경과 매립장 복토제, 인근 군부대 연병장 보수 등 공공기관 및 공공용으로 전량 사용해 공공사업 등의 사업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전역 마을별 남은 농약 수거 마무리

무주군은 2022년 상반기 마을별 남은 농약 수거 처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되는 폐농약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오염을 차단해 수질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지난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무주군 전역에서 마을별 남은 농약 수거사업을 집중 전개했

다. 강 살리기 추진단 무주군 네트워크와 함께 남은 농약을 수거했다.

6개 읍·면에서 수거된 농약량은 총 3,186kg로 목표율 대비 150% 이상 수거실적을 거뒀다.

수거된 농약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미개봉·미사용 농약으로 파악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29가구 대상 배수설비 정비 사업 착수

무주군이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일원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정화조 폐쇄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주군 일원의 수질보전과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군이 단계적으로 배수설비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관내 일부 마을의 경우 배수설비가 미정비되면서 정화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정비사업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군비 3천만 원을 확보 무주읍(15가구), 무풍면(3가구), 설천면(2가구), 안성면(9가구) 등 모두 2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공사는 정화조를 거쳐 하수관로가 연결된 가구에 대해 정화조 폐쇄 후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화조 악취를 차단하는 작업을 펼친다.

군은 이 사업이 오는 6월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하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도 9개 액션그룹 선정

진안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인 진안 웰스푸드산업의 구성체가 될 주민공동체 9개 그룹을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인 진안 웰스푸드 아카데미를 통해 9개의 주민공동체(액션그룹)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심화교육에 들어간다.

웰스푸드 아카데미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선두주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액션그룹 공모사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웰스푸드 아카데미 1기 수료생으로 이루어진 액션그룹은 홍삼분야 2개, 곤충분야 3개, 약초관련 3개, 기타 체험분야 1개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